



'봉사와 회향의 삶'... 해피타임운동

60대는 오랜 삶과 경험에서 형성된 중도적 세계관을 몸으로 체득한 세대이다. 이런 60대가 '봉사와 회향의 삶'을 통해 남은 인생을 살면, 성공적인 사회 재진입을 할 수 있다.

60대가 되려면 우선 환갑이 지나야 한다. 환갑은 60세의 생일을 축하하는 우리의 문화이다. 과거에는 평균수명이 60세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20~40세 정도였다. 환갑잔치에서 자신들은 남자는 2배, 여자는 4배를 했다. 두 번 짚을 하는 것은 환갑이 지난 사람은 돌아가신 조상과 같다는 의미에서였다. 물론 오늘날은 2배나 1배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2008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79세로 늘었다. 2020년엔 84세가 된다. 장수를 축하했던 환갑잔치는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환갑잔치를 한다고 하면 다들 웃는다. 그래서 조용히 가족들과 식사를 한다든지, 여행을 다녀오는 것으로 대신한다. 요즘은 오히려 칠순 또는 팔순잔치가 대세이다. 그러나 이제는 60대는 더 이상 노인 축에 끼지 못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거와는 달리, 60대에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변화는 60대에 미처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들이닥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OECD 국가 중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이 1위인 것을 보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살의 원인을 보면 질환과 장애 40.8%, 경제적 어려움 29.3%, 외로움 14.2%, 가정불화 10.4% 등이다. 늙어서 병들어 고생하는 것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많다. 나이를 먹을수록 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와 퇴

스펀드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에 가장 먼저 개입해야 할 정부나 시민사회도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사회는 60대가 여전히 열심히 일해야 하는 사회로 변해 가고 있다. 피터 드러커는 앞으로 20년 후면 건강이 허용하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75세까지 일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60대는 직장에서 체득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 경제적 여유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볼 때, 그들이 어떻게 사회에 다시 진입하느냐에 따라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다.

60대는 노인 축에 끼지 못해 고령화사회 새로운 도전 기회

없이 부족한 월 소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자살과 함께 황혼과산이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족과 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해 정작 자신들의 은퇴 이후의 설계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60대다. 또 한편으로는 황혼이혼과 황혼재혼도 증가하고 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만큼, 다른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노후를 자기 자신을 위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회생과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것에 대한 반발 심리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나름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은퇴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으로서 '봉사와 회향의 삶'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60평생을 살며 자신이 경험하고 익혀왔던 능력과 지식, 시간 또는 금전적 기부, 여기에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명상까지 나누는 운동을 하고 있다. 바로 해피타임운동이다. 이것이 처음에는 비경제적 활동에 머물렀지만, 점차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봉사와 회향을 통해 자신의 전문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경제적 보수도 받을 수 있다면 60대에 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회 재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로 보면, 60대는 우리 사회를 뒤흔들만한 역동성을 가진 세대로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직장은 은퇴했고, 갈 곳도 마땅치 않으며, 다시 일할 곳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당장은 60대가 무엇인가를 해내지는 못할 것이다. 앞으로도 얼마간은 이러한 혼란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아직 무언가를 요청할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사회적인 시

시대로 변해 가고 있다. 피터 드러커는 앞으로 20년 후면 건강이 허용하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75세까지 일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60대는 직장에서 체득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 경제적 여유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볼 때, 그들이 어떻게 사회에 다시 진입하느냐에 따라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김동권

60대 인터뷰

“여러 세대 공존해 사는 것이 세상”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는 세대 안타까운 이영녀씨

가정주부인 이영녀(63)씨는 벅찬 인상만큼이나 “평소 세대 차이를 많이 느껴본 적이 없다”며 넓은 이해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영녀씨도 “가끔 버스에서 내리다가 실수로 어린 학생들과 부딪히면 오히려 내가 먼저 사과하게 된다”며 “이럴 때는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이씨는 웬만하면 ‘요즘 애들이 다 그렇기 뭐’라고 넘어가기 일쑤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만 관중으로 뒀든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과거에는 타인과 어울려 사는 것이 중요시 됐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조금 삭막해져 버린 것 같아 허탈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영녀씨는 대체적으로 동네 주민센터나 취미활동 등을 통해 만난 40~60대의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는 편이다. 이씨는 “예전에는 여자들의 사회생활이 보편화되지 않아 외부에서 사람들과 교류한 적이 없이 힘들었다. 하지만 요즘은 집안 일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사

를 만날 수 있어 기분이 좋다”며 “아직 힘이 남아있고 느낄 때 무엇이든 해 봐야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씨는 “보통 여자가 50~60대가 되면 갱년기가 찾아온다. 갱년기가 오면 우울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사람을 만나면 생활의 활력도 얻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이영녀씨는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공존해 살아가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각자의 생각과 이념을 존중한다면 굳이 세대 차이를 느낄 일도 없다. 다양한 자체를 인정한다면 얼마든지 함께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녀

이은정 기자

“세대 차이는 시한폭탄, 중재자 필요”

사회 분위기로 세대가 나뉜다는 김태석씨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태석(64)씨는 “요즘 세대 차이는 단순히 나이보다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세대가 나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구조가 먹는 것에서부터 입는 것까지 세분화 돼 가면서 사람들 간의 관계 또한 세분화 돼 가고 있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각 지역의 말투나, 특산물 외에는 사람 사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한 지역문제까지 아닌 좀 더 세분화된 구조에서 사람의 관계가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씨는 최근 할머니와 어린학생 사이에서 벌어져 지하실 폭행사건을 두고 사람들의 반응에 당혹스러웠다고 한다.

“예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사람들이 무조건 어린 학생을 잘못했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어른답게 행동하지 못한 할머니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을 보면 무조건 어른을 공격해야 한다는 사상이 지금은 한 사람의 인격이 더 우선시 되어 있다는

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 많이 놀랐습니다.”

김씨는 “요즘 젊은 사람들을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10~20대의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따라가기 힘들다”며 “세대 차이를 좁히기 위해 굳이 그들을 이해하려 애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요즘 들어 “30대와 대화가 잘 통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보통 30대가 되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키운다. 자신이 부모가 되면서 부모의 마음을 진정 이해해 주는 것 같아 30대와의 대화는 편하다는 의견이다.



김태석

이은정 기자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절대계 부처님의 역종무량 大光明이 쏟아지는 빛의 도량

출천 근교에 위치한 붓다의 성지, 현지궁 현지사예 얹힌 전설같은 진실을 흘린다



◆ 인도의 영축산 영산궁(영산정토)과 대한민국 춘천시의 현지궁(현지사)

‘영산궁’과 ‘현지궁’은 대보살님들이 머물고 부처님께서 설법하고 계시는 부사의 한 해탈세계입니다. 아라한도의 상매로도 볼 수 없는, 하늘세계 위이며 보살이 왕생하는 극락정토까지도 넘은 아주 깊은 차원의 청정 절대계입니다. 남성부주에는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두 곳의 ‘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주 법계에서 가장 깊은 ‘무아 속 절대계(無我寂淨土)’에 계시지만 석가모니부처님은 사바세계 남성부주 교구이시기에 인도 영축산의 영산궁에 머무십니다. 동시에 현재는 불과 이론 두 제자를 완전히 붓다 만들어 데려가기 위해 석가모니부처님을 비롯하여 기라성 같은 여러 붓다님들, 수많은 성증님들과 함께 이곳 현지사 현지궁에 와 머무십니다. 이곳은 오직 불안을 갖춘 붓다만이 찾을 수 있는 붓다의 세계입니다.

◆ 그 어느 성지가 알리오? - 사사무애(事無無碍)의 도리가 현증되어 있는 곳, 부사의 해탈법계 현지 정토를!

천태종의 개조 천태의(天台宗)는 법화삼매에 들어,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지금도 인도 영축산에 머물며 여전히 설법하고 계신 영산회상을 확인하고 그곳을 영산정토라 불렀습니다. ‘영산궁’과 ‘현지궁’에는 부처님을 비롯하여 그 살갑게 제자들과 수많은 호위 성중들, 시중들은 천사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현지사 터 어느 곳에는 밖과 안 바 사이 한쪽의 공간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 만한 부처님 세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엄경의 사사무애(事無無碍)의 도리가 현증되어 있습니다. 오직 불과를 중한 대성자만이 부처님의 궁 안팎을 볼 수 있습니다.

◆ 땅의 기운과 절대계의 빛이 맞닿는 곳, 현지궁 현지사

산과 강 등의 지형과 지기(地氣)를 근거로 하는 풍수지리상의 명당과 달리 실제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는 명당이 있습니다. 몇 백년에 한번씩 보살이 태어날 때에는 정토에서 빛이 내려옵니다. 겁에 한번 붓다가 출세할 자리는 절대계의 빛이 쏟아집니다. 어느날 깊은 산맥 속에서 부처님께서 현신하시어 북한강 따라 자리잡은 어느 곳에 인연있는 수행자가 있음을 일러주었습니다. 어린 사리 북한강 강변의 한 곳을 찾아 부처님께서 저쪽산 꼭대기를 확인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미소로서 답하셨습니다. 이 곳 현지사는 절대계의 빛이 쏟아져 땅의 수승한 기운과 맞닿는 진정한 명당이었습니다..

◆ 회상의 수행자에게는 상응하는 수행자가 필요하다

11세기 티베트불교의 전설적 대수행자 미라레빠의 행적을 담은 (미라레빠의 심판승)에는 수승한 수행자를 찾기 위한 여정이 여러번에 걸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의 수행에 적합한 수행자를 찾습니다. 지역의 의도신들은 드물게 환대하고 함께 불법에 귀의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탄 형상으로 유혹하고 무시무시한 신통으로 위협하며 자신들의 세력 집단과 함께 각종 무기들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의도 빈(티베트속종교)의 사제인 ‘나로빈중’과는 신통을 견주어 승리하고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미세실상의 수행처를 얻어냅니다. 자신만의 능력으로 의도의 힘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불보살님께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바세계 명당의 돌굴 등 수행에 적합한 자리에는 이에 걸맞은 천마(하늘 의도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지사의 터도 마찬가지입니다..

◆ 현지사 터에 거주하던 가장 높은 하늘 신의 세력과 조우(遭遇)하다

현지사가 자리잡기 전에 이곳 절터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늘신 집단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 천마들은 변화속에 능하여 불보살님의 모습으로 현신할은 물론 노인, 호랑이, 구렁이 등으로 순간에 변하여 수행자를 현혹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비록 천마 스스로는 불보살님들에 견줄바가 못되어, 절대계의 빛도 볼 수 없고 이의 가지도 제대로 알 수는 없었지만, 용양 어디에서든 내세울만한 세력과 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 붓다의 화광삼매로 의도들을 조복받다

불과를 이루면 열은 선정에서부터 붓다의 대적정 삼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그 중 화광삼매는 오직 붓다만이 들 수 있는 삼매로 무력으로 시위하는 의도에게 조복받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으로 화광삼매의 힘에 의해 맹렬히 공격하던 의도의 세력들은 순간에 불기둥에 휩싸입니다. 의도의 세력들은 크게 당황하고, 이내 대처할 틈도 없이 불의 온도를 높여가자 의도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수천억도까지 서서히 온도를 올리며 불길줄을 쫓아가자 이내 모든 의도세력이 조복받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든 의도들의 조복을 받고 그들의 기와 신통을 모두 박탈했습니다. 비록 의도들은 인연이 다하여 떠나야 할 운명이었지만 그들을 위해 전라도 어느 곳에 좋은 터를 내주며 모든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 청정 수행도량 현지궁 현지사

사바세계 대한민국의 현지궁 현지사는 절대계의 무량광명이 쏟아지는 곳에 기에 붓다가 탄생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승려와 재가불자들이 가운데 많은 보살이 나오고 수많은 아라한들을 낳을 사바세계 최상의 청정 수행도량이랄 만합니다. 더욱이 이제는 기라성 같은 여러 보신의 부처님께서 상주하시기에 그 가치의 남성부주 전례와도 바꿀 수 없는 모든 불자들의 꿈의 수행처입니다. 가치 미래 만년 불교사의 첫머리를 장식할 영원한 성지라 단언합니다.

현지사 소개 그 여섯번째 이야기 - 절터 이야기 -

※ 자재만현 큰스님 BBS TV 법회 절찬리 방영중!!
10월 15일 대법회 녹화 후 방영 (QOOK 550, BTV 521, U+108번)

현지사 대법회 - 매월 음력 8일, 23일 <http://www.hyonjisa.com>

영산불교 현지사 춘천 본사 033)243-1787/1795 / 대전 본원 042)525-5325, 5345 / 부산본원 051)554-5150